

불모지에서 기적 이룬 한국 스노보드... '황금 시대' 시작 알렸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한국 스노보드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1개씩을 따내며 '황금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경기는 18일(한국 시간) 열린 남녀 슬로프스타일 경기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스노보드에 걸린 금메달 11개의 주인이 모두 가려졌다.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은 3번째로 좋은 성적을 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는 미국이 스노보드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한 오스트리아가 2위고, 한국이 뒤를 잇는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종목도 스노보드다. 19일 오전 1시 현재 한국이 따낸 메달은 6개인데 그 중 절반이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빙상에 쏠려있던 한국의 동계올림픽 메달 지형도에 변화가 생겼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따낸 9개의 메달은 모두 빙상에서만 나왔다. 쇼트트랙에서 5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4개를 수확했다.

이전까지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역대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의 이상호(백선원가드)가 따낸 은메달이 유일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회 성적은 기적에 가깝다.

최가은, 하프파이프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
베테랑 김상겸, 3전4기 끝 은메달... 고교생 유승은도 '깜짝 메달'
동계올림픽 메달 지형도 바뀌... 10대 선수 선전에 전성기 기대감

스타트는 37세의 스노보드 대표팀 만형 김상겸(하이원)이 끊었다. 김상겸은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이자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랭킹 7위인 이상호가 메달 기대를 받았으나 월드컵 랭킹 20위인 김상겸은 관록을 자랑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4번째 올림픽 출전에서 첫 메달을 꿈을 이뤄낸 김상겸은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 주인공이 됐다.

메달을 이어받은 것은 2008년생의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성복고)이었다.

유승은은 지난 10일 열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총점 171.00점을 기록해 3위를 차지,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스노보드가 단일 대회에서 최초로 1개 이상의 메달을 따는 순간이었다.

FIS 월드컵에 막 나서기 시작한 2024년 발목 골절상을 당한 유승은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목까지 다치면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에게 메달을 기대하는 이도 적었다.

그러나 스노보드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유승은은 험거운 시기를 이겨낸 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 메달의 꿈까지 이뤘다.

정점을 찍은 것은 최가은(세화여고)이다.

최가은은 지난 13일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으로 금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 종목 3연패를 노리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이룬 쾌거였다.

한국이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따낸 역대 최초의 금메달이다. 또 최가은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작성한 이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도 경신(17세 3개월)했다.

1차 시기에 큰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크게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최가은은 2차 시기마저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 고득점에 성공해 극적으로 금메달을 땀다.

이번 성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 메달을 향해 달려온 선수들이 이뤄낸 성과다.

김상겸은 2011년 한국체대를 졸업한 이후 실업팀이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해야 했다. 국내에 스노보드 실



스노보드 여자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은.

/뉴시스

업팀이 처음 창단한 것도 2019년으로 불과 7년 전이다.

국내에 하프파이프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다. 그마저도 훈련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최가은의 말이다.

이탈리아 땅에서 가능성을 본 한국 스

노보드가 기대대로 '황금 시대'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훈련 환경 개선은 필수다.

일본은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스노보드 강국으로 완전히 입지를 굳혔다.

2024년 1월 허리를 크게 다친 최가은이 재활을 마치고 실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훈련을 할 때 찾은 곳이 일본이다. 일본에는 에어메트 시설이 있어 여름에도 훈련이 가능하다.

지원과 육성이 이뤄져야 한국 스노보드의 이번 기적이 한순간의 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탈리아 땅에서 가능성을 본 한국 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형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스튜디오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8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8년 만에 정상 탈환

최민정, 역대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6개 타이·동계 최다 금메달 4개 타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 갈증을 풀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19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선에서 4분04초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땀다.

개최국 이탈리아가 4분04초107로 은메달, 캐나다가 4분04초314로 동메달을 나눠 가졌다.

8년 만에 되살린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맥'이다.

한국 여자 계주는 1994년 릴레함메르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4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석연찬은 판정으로 실격해 메달을 따지 못했으나,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다시 2연패를 달성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밀라노에서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한국은 이번 우승으로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10차례 치러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통산 7번째 정상에 올랐다.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은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첫 번째 금메달이다.

또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은(세화여고)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빛 메달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은(세화여고·금메달),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연(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현(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m 김길리(동메달)에 이어 여자 계주까지 총 7개 메달을 수확했다.

앞서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통산 6번째 메달을 따며 진중은(사격)과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 공유했던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타이틀을 이뤘다.

아울러 쇼트트랙 전설 전이경(4개)과 함께 한국 선수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과 여계를 나란히 했다.

김길리는 여자 1000m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계주 준결선에서 노도희 대신 된 이소연(스포츠포토)도 금메달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 15일 치른 여자 계주 준결선 2조에서 4분4초72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캐나다와 함께 각 조 상위 2개 팀이 나서는 결선에 올랐다.

준결선 1조에서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각각 1, 2위로 결선에 나섰다.

27바퀴를 도는 결승에선 한국의 막판 뒷심이 빛났다.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경쟁한 한국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세 번째 주자인 노도희가 캐나다에 선두를 내주며 2위로 밀려나 데 이어 20바퀴를 남기고는 김길리가 3위까지 내려갔다. 레이스 중반에는 앞서 달리던 네덜란드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서 혼돈에 빠졌다.

총돌 위기를 피한 한국은 최민정이 빠른 속도로 따라붙으며 3위 자리에서 캐나다, 이탈리아를 바짝 추격했다.

3위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던 한국은 4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인코스를 파고들어 2위로 올라섰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뒤에서 힘껏 밀어준 덕분이었다.

이어 2바퀴를 남기고는 김길리가 인코스로 침투해 선두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마저 제치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금빛 질주를 완성했다.

8년 만에 금메달을 합작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시상대에서 다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었다.

/뉴시스